

1. 말레이시아의 전자산업

1972년 최초의 반도체 조립 공장이 설립된 이래 수출 지향적인 전자산업은 급속 성장을 거듭하여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부문의 생산, 고용 그리고 수출면에서 선도적

응용은 크게 향상되어질 것이다. MSC에서 개발 되어질 애플리케이션은 전자 정부, 텔레메디슨, R&D, 세계적 제조망, 국경없는 마케팅, 멀티미디어 펀드 해브 그리고 다목적 스마트 카드등이다. MSC는 앞으로 주요 대도시 및 성장 센터와 연결되어질 것이다.

-하이테크 산업화 추구-

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850개 이상의 기업이 광범위한 종류의 전자부품, 소비자 가전제품 및 산업용 전자제품 등을 제조하고 있다.

전자제품의 1997년도 수출 총액은 31조 2,928억원(1,016억 RM)으로 전체 공산품 수출의 58%를 차지하였으며, 전자부품이 12조 5,664억원(408억 RM), 소비자 가전제품이 8조 9,936억원(292억 RM) 그리고 산업용 전자제품이 9조 7,328억원(316억 RM)을 각각 차지한다.

전자산업은 앞으로 수출, 고용 및 제조 부가가치 증대에, 또 나아가서는 말레이시아의 기술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공업화 전략은 수출 지향적이며 고부가가치, 자본 및 기술집약적 그리고 지식중심의 산업, 연구개발 및 기술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첨단 전자산업(컴퓨터 주변기기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프로그램의 디자인, 개발 및 생산, 통신 장비의 개발과 생산, 집적회로의 설계 및 생산)과 광전자 전압(광전자 시스템 컴포넌트, 광 시스템 컴포넌트, PHOTOCOUPERS 및 반도체 레이저 등의 개발 및 생산)의 개발과 생산 등과 같은 하이테크 프로젝트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 IT 및 멀티미디어 산업 개발

정보기술 및 멀티미디어 산업은 최우선 분야로 주목을 받으며 전자산업 성장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되어진다.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주도된 Multimedia Super Corridor (MSC) 설립과 더불어, IT의

이로 인해 제조업체들은 원거리 제조 마케팅 그리고 R&D와 같은 고부가가치 활동을 확대 향상시킬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3.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부문에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이다. 1980~1998년 기간 동안 한국은 268건의 제조 프로젝트에 총 1조 6,632억원(54억RM)을 투자하였다.

주요투자부문은 전기, 전자 및 비금속 광업 등과 같은 주요 산업부문이다.

말레이시아에 제조시설을 설립 또는 설립할 주요 한국기업으로는 삼성코닝(컬러 브라운관용 유리 패널과 유리 funnels), 삼성전자(전자렌지), 삼성전관(브라운관과 전자총), 대우전자(세탁기), 아남S&T, 현대전자(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회로기판), LG C&D(스피커)등이다.

한국의 중소 전자 제조업체를 역시 말레이시아에 제조 시설을 설립하였다.

말레이시아는 하이테크 전자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를 환영하며, 특히 정밀전자 부품 및 부품품 등 말레이시아의 다음 단계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하이테크 전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환영한다.

말레이시아의 산업 발전 진흥 및 조정을 담당하는 주요 정부기관으로 쿠알라룸푸르에 본부를 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MIDA)은 서울 사무소 설립 등을 통해 한국 투자자들의 말레이시아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 및 시설 설립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